

日本政府에 보내는 영서인지

모든 우리들은 太平洋戦争遂行 準備에서 軍人・海軍으로
 本에 依據 勳章 되었다가 日本을 爲하여 戰歿한 韓國人先人の
 遺骸으로 發掘後 二五年의 經過한 이제 뒤늦게나마 禮節을
 대기위해 한자리가 되었다. 當時 日本은 우리들의 先人을
 日本 本土上 미혹하여 中國・南方豫藏의 皇戰이란 이름으로
 끌고 갔고 國內외로 所謂 朝鮮總督府 總動員會에 依據 勳員
 된 사람이 日本政府 公式發給한 二四万에 이르렀고 그
 核심者는 無算 二万余에 達하고 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
 이 아닐수 없다. 불안 아니라 日本은 終戰後 所謂 復員還人을
 위해 復員局을 設置하여 戰場에서 도라온 生存者의 처한 厄
 苦의 減輕을 勿論 埋葬중의 처리서는 遺骨의 收葬과 아울러
 遺骸에 對한 禮遇를 待할리 望望하였다

우리는 韓國人으로서 自然 歷史의 汚辱을 새삼 切腹하듯
 痛切을 感하며, 다만 우리는 오늘날의 處境을 直視하고 當面한
 後人으로서의 責任자가 있을만하다

當時 우리의 先人은 日本에 依據 日本人의 身分으로 日本
 을 위해 犧牲했고 또 犧牲 當面했다. 그런데 日本은 여겨하
 여 우리 先人에 對한 禮遇는 四半世紀의 歲月동안 東京하늘
 아래 放擲한채 遺骨의 本國送還과 그 밖에 發還한 遺骨의
 收葬에 誠意를 보이지 않고 있는지 알길이 없다

우리는 지금 救済的 理由云云에 藉을 기우릴 겨우이 없다
 韓日間에 關係를 맺고 세르운 世代의 繼承로 國交가 正當化
 된지도 벌써 七年에 접어들었기때문이다. 韓의 日本人으로서
 名分을 찾던 日本이라면 적어도 日本人과 同一한 禮節을 賞與
 이 人類道義上 마땅할 일이고 모처럼 우리가 이를 主張하거
 야 하는이 속스럽지 않은가. 우리는 이제 이제를 華論하자
 않을려고 한다

悲憤을 잊고서서 오를라 來日을 위해 日本政府와 國民의
 良諫에 呼訴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一瞬의 遲滯도 이제는 있
 을 수 없음을 말하는바다

기나긴 歲月의 흐름에 後人으로서 哀痛함과 切迫함이 있었
 고 지금 우리가 先人의 祠堂 墓傍에 後祭를 遂行하지 않으면